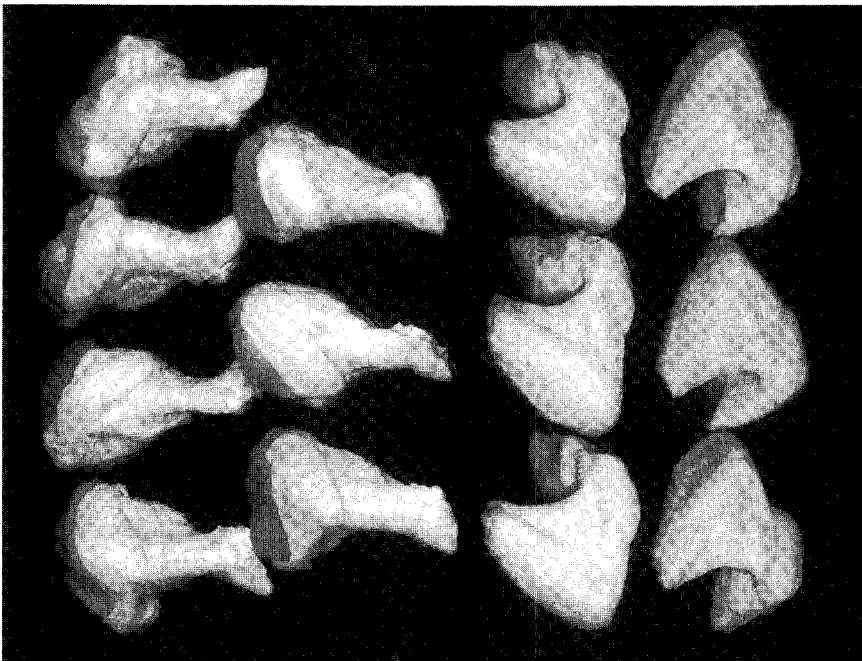


가열 닭고기 수입 여지 높아진다

— 육계업계 닭고기 수입 저지만이 살길이다 —



지난해 12월부터 올 5월까지 아시아 국가들과 미국 등지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로 닭고기 수출입에 이상 기류가 흐르고 있다. 우리나라 닭고기 수입의 절대수를 차지하고 있던 미국, 중국, 태국에서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가 발생하여 국내 닭고기 수입이 중단된 상태이다. 그러나 최근 미국, 태국, 중국이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 종식선언을 하고 우리나라 닭고기 수출 재개 움직임이 일고 있어 진행 상황을 파악하여 보았다.

덴마크산 닭고기 수입량 급증

2004년 1월부터 5월까지 검역을 마친 수입 닭고기는 6,304톤이다. 국가별로 보면 태국산은 1월 25일, 중국산은 1월 30일, 미국산은 2월 7일부터 검역이 중단되어 유럽으로 수입무대가 옮겨져 3월에 덴마크와 프랑스에서 수입된 닭고기는 69톤으로 연중 최저 수준을 보였다.

5월부터 영국산 닭고기가 들어오면서 닭고기 수입 국가는 3개국으로 늘어났고, 5월 수입물량은 4월 수입량 640톤보다 147% 늘어난 1,587톤으로 3월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1. 닭고기 검역실적(단위 : 톤)

(단위 : 톤)

부위별	국가	1월	2월	3월	4월	5월	합계
가슴	미국	-	0.02	-	-	-	0.02
	중국	-	-	-	-	-	-
	태국	70	-	-	-	-	70
	소계	70	0.02	-	-	-	70.02
날개	덴마크	-	-	26	192	361	579
	미국	49	22	-	-	-	71
	영국	-	-	-	-	24	24
	프랑스	-	-	25	321	299	645
	태국	955	-	-	-	-	955
	소계	1,004	22	51	513	684	2,274
다리	덴마크	21	21	18	127	881	1,068
	미국	892	742	-	-	-	1,634
	영국	-	-	-	-	21	21
	중국	-	-	-	-	-	-
	태국	1,198	-	-	-	-	1,198
	소계	2,111	763	18	127	902	3,921
기타	미국	-	-	-	-	-	-
	태국	49	-	-	-	-	49
	소계	49	-	-	-	-	49
전체육	미국	-	-	-	-	-	-
	태국	-	-	-	-	-	-
	소계	-	-	-	-	-	-
합계	3,233	785.02	69	640	1,587	6,314	

5월까지 검역을 마친 품목별 물량은 날개 2,274톤, 다리가 3,921톤으로 다리와 날개가 전체 검역량 6,314톤의 98%를 차지하였다.

수입업체는 총 14개업체에 이르며 아시아와 미국산 수입 중단으로 열기는 식은 것처럼 보여진다.

태국 및 중국산 포함 수입닭고기 10,456톤 통관

2004년 1월부터 4월까지 수입 통과된 가금류의 고기나 식용 설육은 11,145톤으로 주요 수입국은 태국, 미국, 중국, 프랑스, 덴마크 5개국이다. 이중 닭고기의 다리, 날개, 가슴, 기타 수입량은 10,456톤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가금육 수입 중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많이 먹는 냉동 닭다리는 7,062톤, 냉동 닭 날개는 2,704톤, 냉동 닭 기타 452톤, 냉동 닭 가슴은 238톤이다, 수입 국가는 미국, 태국, 중국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다리 부분육 226톤을 덴마크에서 수입할 뿐이었다. 눈에 띄는 것은 미국산 신선한 닭고기 절단육이 지난 2월 144kg이 국내에 통관되었다는 것이다. 통관된 태국, 중국, 미국산 닭고기는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 발생전에 수입되어 검역을 마친 것으로 파악되었다.

중국 및 태국산 가열제품 수입위생조건 체결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 발생으로 냉동과 신선육 닭고기 수출길이 막힌 후 수업을체들은 올 1월부터 4월까지 일정한 온도에서 열처리한 제품(삼계탕제외)을 태국, 일본, 미국 등지에서 197톤(평균 3불/kg)을 수입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물량은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표2. 닭고기 통관실적

(단위 : 톤)

부위별	국가	1월	2월	3월	4월	합계
가슴	미국	-	-	-	-	-
	중국	-	-	-	-	-
	태국	56	38	120	24	238
	소계	56	38	120	24	238
날개	덴마크	-	-	-	102	102
	미국	24	142	45	-	211
	영국	-	-	-	-	-
	프랑스	-	-	-	234	234
	태국	1,259	806	43	46	2,154
	소계	1,283	948	88	382	2,701
다리	덴마크	41	20	-	165	226
	미국	1,132	795	1,196	339	3,462
	영국	-	-	-	-	-
	중국	22	-	26	24	72
	태국	1,359	519	855	570	3,303
	소계	2,555	1,334	2,077	1,098	7,064
기타	미국	23	-	-	-	-
	태국	265	48	50	24	387
	중국	20	-	-	21	41
	소계	310	48	50	45	453
전체육	미국	-	0.144	-	-	0.144
	태국	-	-	-	-	-
	소계	-	0.144	-	-	0.144
합계		4,204	2,368	2,335	1,549	10,456



통관된 냉장·냉동 닭고기 29,591톤의 0.6% 수준이다.

수입업체와 중국 및 태국 수출국은 가열제품 수입량을 늘리기 위해 검역원과 농림부에 합법적인 절차를 밟기 시작하였고, 지난 4월 1일에는 한국과 중국, 태국간 열처리된 가금육제품수입위생조건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중국과 태국은 지난 4월 가열처리된 닭고기 수출을 위하여 우리나라에 수출 작업장 지정을 신청하였고, 닭고기 검역·검사 업무를 맡고 있는 검역원은 지난 4월 17일부터 4월 25일까지 태국, 4월 20일부터 4월 27일까지 중국의 수출 작업장 검사를 마쳤다.

태국과 중국에 파견된 3명의 조사단은 검역, 검사, HACCP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었고, 열가열 제품이 별 문제가 없으면 수입을 승인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는 것이 검역원 담당자의 답변이다.

결국 검역원은 지난 6월 1일 중국 베이징, 산둥 등 11개 수출 작업장에 한해 닭고기 가열제품 수출을 승인한다고 중국 대사관에 통보한 상태이다. 태국은 종합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지만 별다른 하자가 없어 조만간 7~8개 수출 작업장을 승인할 방침인 것으로 조사되어 빠르면 7월이면 태국산 닭고기 가열제품이 국내에 상륙할 조짐이다.

한편 수입이 우려되었던 미국은 위생조건 협의가 없어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이다. 미국은 수출 물량이 적은 한국보다는 수출량이 많은 일본에 관심이 많아 한국 수출에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가열 닭고기 수입증가, 원산지 표시로 대응

중국과 태국간 열처리된가금육제품수입위생조건이 체결되고, 2개국의 수출작업장 승인이 완료되면 닭고기 가열제품의 수입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품질과 거래 조건이 불리한 유럽산의 냉장 및 냉동 닭고기 수입 물량은 감소할 전망이다. 대형 닭고기 소비업체들은 최근 다리와 날개 수입이 원만하지 않자 매장에서 상품을 없애고 가슴살로 대체하는 경향이 나타났지만 이 같은 상황은 태국과 중국산의 가열제품이 본격 수입하게 되면 변화될 조짐이다.

결국 닭고기 수입업체들이 가열 닭고기 수입을 늘리면 국내 육계가격 폭락과 농가들의 경영 악화가 예견되고 있으므로 육계업체는 1차적으로 닭고기수입을 강력하게 저지하고, 2차적으로는 닭고기 원산지 표시제 도입, 국내산과 수입산 구별 소비자 홍보, 수입닭고기 판매업체 공표 등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한 대응책이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안기** 취재 | 김종준 과장 (jjun@poultry.or.kr)